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섬김과 봉사로 주님의 길을
가게 될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나를 보지
않고 주님만 보기를 힘씁니다.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소중한 그 무엇

신윤식

안개 자욱한 오르막 길
두 아주머니가 앞서간다.
행하니 앞지를까 하다가
조용히 뒤 따르며
생각에 잠겨 본다.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내려가는 길
여전히 안개로 가득하고
골짜기는 적막만이 흐른다.
상쾌한 공기 만끽하며
느긋하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누군가 타닥타닥
바빠 내려오는 소리
느긋하던 내 걸음도 바빠진다.
추월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한참 지났을까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비틀비틀 힘겹게 산을 오른다.
보아하니 중풍 환자다.
아직 한참 일할 나이

안개 덮인 세상처럼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
앞지르고 추월당하지 않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
복음, 그리고 생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12.11

발행호수 제19권 46호

예 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많 습니다. 교회 안은 물론이 고 교회 밖에도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으로 가득하 니다. 물론 교회 안의 사람 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구세주로 믿는 다 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

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 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 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 나 그 얕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지만 그들의 얕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얕과 기대가 무너 지자 자기 살길을 찾아 예수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제 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참된 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붙들어 놓 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얕은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어떤 형편에서도 의심과 흔들림이 없이 얕의 대상을 좇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 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나 예수님 을 믿는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 의 삶의 모습들과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 작히 들여다보고 과연 자신이 얕의 길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나라 또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세우실 주의 나라는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기대

주일오전설교
마 26:47-56

말씀의 성취

는 실망과 배신으로 이어졌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큰 무리들은 칼과 몽치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일 이십 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백 명의 무리가 예수를 잡겠다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한 사람 잡겠다고 그렇게 큰 무리를 동원한 것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설사 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큰 무리를 동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 큰 무리를 동원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월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선동해서 군사들에게 대항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큰 무리를 파견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아무 대항 없이 순순히 붙잡히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추종하는데 그들을 선동해서라도 힘을 모아 대항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몽치로 무장한 큰 무리를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며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상을 힘으로 사는 것 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힘에는 힘으로 대항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힌 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에 갇힌 상태의 삶이 전부입니다.

다. 그래서 부흥 성장을 이뤄주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복을 주어 힘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는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가득한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에 힘이 복이 될 수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에 갇힌 자의 얇은 참된 얇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종의 귀를 벤 제자는 베드로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큰 무리들 앞에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은 칭찬을 받지 못하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열 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2-54절)는 책망만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흔히 기독교를 비폭력주의, 무저항주의, 평화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열 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무저항주의자고 비폭력주의자고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55,56절)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붙잡힐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잡으려 하고 또 잡히는 것은 다 선지자의 글, 즉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자신이 살 길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고자

하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기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오직 예수님 한분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이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왜 이 같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만 가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의 뜻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뜻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뜻을 이뤄주는 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수준에 맞는 다른 예수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를 복주시고, 우리의 뜻을 이뤄주시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주는 예수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뤄지기 위해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나라인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로 존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군사들과 미리 군호를 짝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신호를 정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께 나아와 탁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미리 그렇게 신호를 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께 다가가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요’ 라고 가리키면 될 일을 왜 번거롭게 신호를 정하고 예수께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이미 떠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밀어 넣는 행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유다가 신호를 정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유다의 행동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를 팔아넘기는 배신의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어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끝까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이 사람이 예수요’ 라고 했다면 스승을 배신한 자가 자신임을 만 천하에 드러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아마 그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신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는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신호를 정하여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배신을 감추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존재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지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나의 일이 이뤄지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의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세상 살 맛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말씀이 이뤄지는 것보다는 나의 일이 더 크고 중요한 것으로 다룹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구원이 이뤄진다면 그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나의 일이 이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지는 것을 더 크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일이 이뤄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지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지는 것에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지는 길을 가진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에 우리의 전부를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힘으로 누리는 쾌감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주는 승리감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는 결코 참여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취된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힘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덕심을 발휘하여 존재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이뤄지는 것에 자신의 모든 뜻을 두고 순종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앎이고 믿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자연히 교제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교회 역시 사람이 함께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교제는 세상이 이해하는 교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모임이긴 하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는 신자로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보면 교제를 신자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어울려 식사하며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각자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기보다 교회에 남아서 함께 식사하며 어울리는 신자의 수가 많을수록 교제가 활발하게 잘 되는 교회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제는 교회 밖의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보다 더 깊고 친밀감이 있는 교제를 이루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교제는 기껏해야 식사를 함께 하며 어울리는 정도겠지만 교회 밖에서는 화식과 함께 술과 노래방 등등 다양한 놀이와 함께 어울리며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교제가 교회 밖 사람의 교제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어울리는 것도 교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제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것에는 교제의 의미를 찾으신다면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의 교제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믿음으로 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처럼 교회라는 관계를 떠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 인간적 친분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인간적 관계를 따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자의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인간관계가

주일오우설교

몬 1:4-7

교회와 교제

(교회16강 11.27 설교)

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신자의 교제는 단순히 함께하여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고후 13: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성령의 교통하심’ 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통, 즉 교제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교제는 단지 인간들끼리의 교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의 관계를 서로 돈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교통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영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은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생명의 세계에 참여하게 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성령의 교통으로 인해서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로 만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교제를 신자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믿음의 교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빌레몬의 교제가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신자의 교제는 성령으로 인한 교통이며 믿음으로 가능한 교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교회 밖의 세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독특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믿음의 교제로 인한 유익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서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고 말하는 것처럼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로 인한 유익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교제는 나의 즐거움이 목적이며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지 않은 교제의 자리에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교제는 나의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런 교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이나 친분 관계 등으로 이런 교제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교회에서의 믿음의 교제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제는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어떤 것이었기에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였다고 말할까요? 이 역시 사도는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당시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집에 노예가 있었다는 것과 그의 집을 개방하여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 부유했던 빌레몬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5절). 부유했던 빌레몬이 모든 성도에 대해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부유함이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로 나오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만 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은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해서 있는 자는 있는 자끼리 없는 자는 없는 자 끼리 어울리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사도의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세상 지위의 높고 낮음, 재물의 많고 적음이 다른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로 인해서 신자의 관계가 나뉘진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의 교제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신자의 교제란 없습니다.

신자가 믿음의 관계로 모인다면 세상의 그 어떤 차이도 차별이나 구별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위나 재물로도 나뉘질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자는 지체입니다. 이 몸이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뉘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성령의 교통으로 하늘의 생명의 세계를 누린다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은 내 소유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자기 소유를 힘으로 여기며 그 힘을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야 말로 믿음에서 벗어난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인한 생명의 세계에 속하게 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형제에게 있는 선, 즉 하늘로부터 주어진 복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누구라도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내어 놓게 되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로 하여금 생명의 세계를 누리는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악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고 말합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는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보다는 평안을 얻게 했다는 것은 신자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는 우리라면 우리에게서는 믿음의 교제가 나와야 합니다.

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가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내 마음에 맞춰주기를 더 원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의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그저 재난이나 재앙으로만 바라보면서 왜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역한 자로 말하고 유다는 반역한 자로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문맥만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더 의롭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배역이든 반역이든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를 두고 누가 더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두고 의롭다는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유다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으면서도 자신들이 가는 길을 돌아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유다는 이스라엘을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 역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멸망을 받는 쪽이나 멸망을 보는 쪽이나 멸망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요일설교

렘 3:11-18

돌아오라

(10강 11.23일 설교)

하지만 유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자신들의 길을 돌아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8절의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므로 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도 가서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행음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자리하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악보다 더한 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처럼 당하지 말자’ 라는 교훈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단순히 그들의 힘이 약한 결과로 보고 힘을 길러야 당하지 않는다는 교훈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힘이 없어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이 잘못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이러한 시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갔던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도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맞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세상은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주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행하신 실패와 승리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성경은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

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길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사실은 그들이 자기 영광과 힘을 구하는 길로 갔기 때 문은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가서 복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미 멸망한 복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을 선포하라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것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배역을 깨닫고 긍휼이 있으시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양육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로 배역한 길을 가는 자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로 돌아키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산다면 그것이 곧 배역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다른 것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악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이들이 모인 곳에서는 자기의 신앙 열정과 노력을 기억하고 과시하지 않게 됩니다(16절). 다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일컬음 받게 하신 예수님의 일에 감사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신자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9장
교 독 : 73(사65장)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185장
성 경 : 마 26:47-56
말 씀 : 말씀의 성취(16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00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5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02장
기 도 : 송재관 집사
찬 송 : 285장
성 경 : 합 3:2
말 씀 : 교회와 부흥(교회1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88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13강)

■ 교회소식 ■

1. 금요일(9일) 새벽에 이영민 장로님 장인(한옥섭 권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이옥주 집사

고난의 의미①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들 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계절을 따라 사방이 꽃으로 만발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TV에서 접하는 소식들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어떤 고통에 빠진다고 해도 침묵하실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과연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능대로라면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신앙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힘을 써도 괴로움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믿는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은 관념에만 머물게 되고 우리들 마음은 세상에 붙들려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간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인해서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마치 꼭두각사처럼 움직일 뿐이다. 세상일에 아예 눈과 귀를 막고 살아가면 그나마 근심이 덜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더 힘들 뿐이다.

하나님은 과연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에 눈과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일까? 아니면 세상의 시간 저편에 홀로 계시는 존재이신가? 그래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요, 이천 년 전에 자기 백성을 죄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분이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세상의 일, 또한 우리의 일에 참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침묵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와 고난을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것은 세상의 고통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신에 대한 항변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항변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의 항변만이 아니라 신자 또한 이러한 항변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록 논리적으로는 항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적으로는 ‘나의 고통에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십니까?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 것입니까?’라는 항변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러한 항변을 했다. 세상의 강포와 패역에 대해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항변을 했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는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도 항변을 했다. 하박국의 항변에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답하신다. 마치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듯한 말씀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도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지 못하고 믿음과 현실의 문제 사이에서 항상 애매함을 느낄 뿐이다.